

Vol.

67

2022년 9월

해사안전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http://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전 세계 선원의 인권과 복지 수준, 코로나19와 전쟁 발발로 역사적으로 가장 저조

### IMO 임기택 사무총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 식량 공급 안정화 사이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선원의 안전과 복지임을 강조

- ▶ IMO,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흑해 곡물운송계획에 합의 <sup>a)</sup>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95%를 수출하던 흑해 일대를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만에는 밀과 옥수수 등 2천 5백만 톤이 묵이고 평균 밀 가격이 50%까지 폭등함
  - 우크라이나의 밀 수입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파산과 기아 위기에 놓이면서, IMO 이사회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관련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항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에 요청함
  - UN은 전쟁이 발발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는 흑해의 세 개의 주요 우크라이나 항만인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및 유즈니에서 중요한 곡물 및 식료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주의적 항로 구축계획에 대한 회담을 진행한 결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7월 22일 해당 계획에 서명함
- ▶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총괄관리기구는 곡물계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항만에 82척의 선박과 418명의 선원 고립되어 새로운 항로를 발표함 <sup>b),c)</sup>
  - 국제해운회의소(ICS) 분석에 따르면 7월의 곡물운송계획은 우크라이나 세 항만의 벌크선에만 해당되었으며, 유조선들을 포함한 다른 선박들은 인도주의적 항로에 접근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항만에는 여전히 약 82척의 선박과 418명의 선원이 고립되어 있음
  -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총괄관리기구인 공동조정센터(JCC: Joint Coordination Centre)는 8월 26일 흑해 곡물운송계획에 따른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및 피브덴니/유즈니 항만으로부터 입출항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항로를 발표함
  - JCC 절차에 따라 선박이 해당 항로를 통과하는 동안 군함, 항공기 등은 선박의 반경 10마일 이내 접근할 수 없으며, 상선은 항로 통과 중 외부의 도발이나 위협이 있을 시 즉시 JCC에 보고해야 함
- ▶ 흑해의 곡물 공급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며 복지 지원도 고려 필요 <sup>b),d)</sup>
  - 지난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약 2천명의 선원들과 94척의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좌초되었으며, IMO와 ICS는 현 사안이 복잡한 문제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음
  - IM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래 선원의 복지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국제해운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흑해의 곡물 공급을 직접 체험하고 선박 안전 및 항만 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하면서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적 과제를 언급함

〈그림 1〉 흑해 곡물계획에 따른 인도주의적 항로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is map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Creation date: 23 Aug 2022 Prepared by: OCHA Schematic only

자료 : BIMCO

## ■ 선원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주 및 선사의 책임감 가져야

-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선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용하여 선원의 인권 보장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증가<sup>e)</sup>
  -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125명 검사관들은 2021년 선원의 임금체불 관련 7,265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선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인 약 3,759만 달러 (한화 약 525억)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
  - ITF는 2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선원의 수는 증가할뿐만 아니라, 작년에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85건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해 우려스러움을 표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제한으로 약 40만명의 선원이 원활한 선원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선주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근로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 ▶ 호주 해사안전청(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은 선원의 육상 휴가 제공은 선원의 심신 건강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sup>f)</sup>
  - 선사, 선주, 선장은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에 근거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육상 휴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승인해야 함
  - AMSA는 육상 휴가와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이 선원의 심신 건강을 회복하고 피로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선사는 선원의 건강, 안전과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 국제사회 위기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원이 역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 ▶ 해운에 의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복지 보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선원법 제84조에 근거하여 3일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최대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은 의사가 승무하여 항해 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상선은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박 또는 하선하지 않는 이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열악한 환경에서 물류의 원동력인 선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승선직에 대한 매력은 해마다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선원의 감소로 이어짐
  - 정부와 선주(선사)는 안전항해와 무사귀환에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선원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한계점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함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참고  
자료

- a)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BlackSeaMaritimeCorridorAgreement.aspx> (검색일: 2022.9.15.)
- b) <https://safety4sea.com/hundreds-of-seafarers-still-stuck-in-ukraine/> (검색일: 2022.9.16.)
- c) <https://safety4sea.com/new-shipping-route-under-the-black-sea-grain-initiative/> (검색일: 2022.9.16.)
- d)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IMOVisitsOdessa2022.aspx> (검색일: 2022.9.15.)
- e) <https://safety4sea.com/crew-abandonment-reaches-historic-high/> (검색일: 2022.9.17.)
- f) <https://safety4sea.com/amsa-shore-leave-vital-to-seafarers-physical-and-mental-health/> (검색일: 2022.9.15.)